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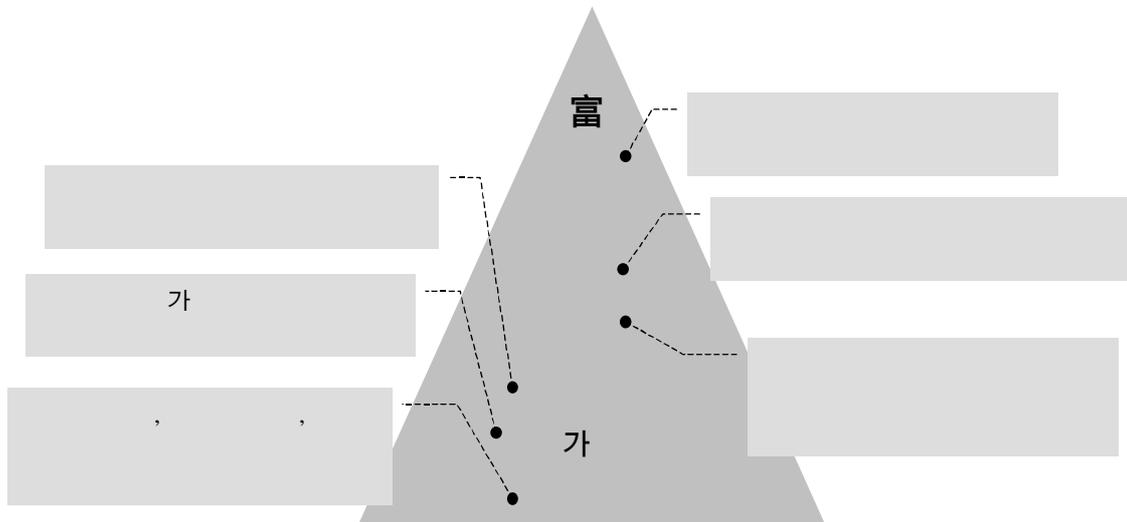
VI. 지식의 지배 (Building Wealth)

레스터 서로우⁵⁾ 著(한기찬 譯), 1999

1. 서 - 富의 피라미드

부를 왕성하게 일으킬 지식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사회는 어떻게 재구성되어야 하는가? 기업가들로 하여금 변화를 일으키고 부의 창출을 꾀할 필요를 느끼게 만드는 것은 무엇인가? 지식 기반 부라는 것은 어떻게 발생하는 것인가? 어떤 기술이 필요한가? 이 새로운 지식 경제 시대에 자연 및 환경 자원의 접합점은 어디에 있는가? 물질적 도구(자본)가 더 이상 체제의 핵심을 차지하지 못하는 지식 기반 자본주의 경제에서 도구 생성은 어떤 역할을 하는가? 개개인에게 판매 가능한 재화의 발생 과정은 어떤 것인가? 근본적으로 개인과 기업, 사회를 위해 새로운 부의 피라미드를 쌓기 위해서 지식은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가? 지식 기반 경제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의문들을 풀어야 한다.

<그림> 부의 피라미드



5) 레스터 서로우(Lester C. Thurow)는 MIT 슬로언 스쿨 학장을 역임하였고, 대통령 경제 자문위원 및 전국 노동력 정책 자문위원으로 활동중임

2. 富의 피라미드 해부

- 세계 경쟁 시대 개인, 기업, 국가의 13가지 생존 법칙

<법칙 1> 진정한 부자들은 기회를 포착하고 매우 불균형한 상황에 투자한다. 돈을 모아 거부가 된 사람은 없다. 정성스레 돈을 모으고 안정된 상황에만 투자하는 사람은 노후의 안녕을 얻을 수는 있겠으나 결코 큰 부자가 될 수 없다.

엘리트 위주의 교육에서 대중적 기술교육(새로운 기술을 발명하기 위해 많은 수의 과학자, 공학자, 기술자, 숙달된 노동자를 양산하는 교육제도)으로 전환시키는데 미국처럼 발 빠른 국가는 없었다. 이러한 대중 교육을 기반으로 미국은 비록 세계의 기술적 선도국은 아니었으나 20세기 초 세계 최대 부국이었던 영국의 자리를 차지했다.

<법칙 2> 훌륭한 기업가는 언제나 현재의 기업을 해체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만 한다. IBM은 신기술을 가지고 있었고 경쟁할 준비가 되어있었으나, 새로운 사업부문을 위해 과거의 대형 컴퓨터 부문을 버려야했기 때문에 그 사업을 포기하였고 결국 인텔과 MS에 밀리게 되었다. 반면 메르세데스가 크라이슬러를 인수한 것은 해체의 좋은 본보기가 된다. 한쪽은 대중을 위한 차를 만들고 다른 한쪽은 고급 차를 생산하고 있다. 한쪽은 혁신적인 디자인으로, 다른 한쪽은 전통적인 디자인으로 각각 명성을 얻고 있다. 서로 다른 문화권을 가진 두 회사를 결합하는 데 따르는 인적 문제만 극복된다면 그 거래로 돈을 버는 사람은 분명히 생길 것이다. 이처럼 국가적 차원에서도 마찬가지로 스스로를 해체하여 재생산할 필요가 있다.

<법칙3> 초고속으로 성장하는 사업은 불안하고 위험한 기술이나 개발, 혹은 사회적 불균형을 기회로 이용하고 조장한다. 승리자는 신기술을 이해하는 사람들, 운 좋게도 적시에 꼭 필요한 장소에 있게 된 사람들, 그리고 이런 새로운 상황을 이용하는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다. 그들이 부자가 된다(기술적 불균형). 불균형한 상황은 대체로 기술의 급격한 변화에서 야기되지만, 인간의 습관을 변화시키는 사회학적 요인들을 간과함으로써 불균형을 창출하는 사업가도 있을 수 있다.(사회적 불균형) 발전 수준이 전혀 다른 국가들이 존재할 때 사업가들은 미개발 국가에서 선진 국가의 사업 양태를 본 뜬으로써 부를 창출한다(발전적 불균형).

<법칙4> 기업가는 모든 조직의 생리적 약점을 이해하고 인식하고 이를 받아들임으로써 지혜로워질 수 있다. 반도체 칩을 제조하는 데 쓰이는 순수한 실리콘 웨이퍼 생산은 전적으로 일본과 유럽 회사의 수중에 있다. 이 부분에서 미국 기업

들이 취약한 이유는 많은 인내와 훈련, 그리고 성숙된 기술을 기반으로 한 부분에서 그들이 갖는 약점을 일찌감치 인정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과감한 다운사이징을 통해 최고의 반도체 칩 설계 기업들이 미국에 들어설 수 있었던 것이다.

<법칙5> 디플레이션기의 성장은 어렵다. 디플레이션기에는 기업이 재고를 보유할 여력이 없다. 비용을 낮추는 것이 핵심이기 때문에 기업들은 종업원의 임금을 낮출 수밖에 없다. 개개인은 구매를 미루고 부채를 상환한다. 그리고 또다시 기업들은 재고를 줄이고 부채를 상환하려고 하게 된다. 오늘날의 경제체제에서 디플레이션과 경제 성장은 양립할 수 없는 것이다. 1930년대 대공황기에는 가격하락이 GDP 하락을 유도하고 GDP 하락이 다시 가격하락을 유도하는 악순환이 발생했다.

<법칙6> 기업가라는 변화 주체를 대신할 기구는 없다. 성공적인 사회는 자신들이 가진 것을 파괴하여 과거와 다르며 더 크고 더 강한 어떤 것을 미래에 만들기 위한 모험을 감행할 태세가 되어 있다. 새것이 사회에 적응하는 것이 아니다. 사회가 새것을 채택한 다음 그것에 적응하는 것이다. 따라서 사회는 그 스스로가 변화하려하지 않는 한 기업가를 갖지 못할 것이다. 서유럽의 진정한 문제 이면에는 변화 주체, 즉 기업가가 없다는 사실이 자리하고 있다. 또한 한 단계 더 높여서 원인을 찾아보면 아마도 변화를 원하지 않고 따라서 기업가의 출현을 가로막고 있는 사회라고 할 수 있다.

<법칙7> 발전은 질서와 창의성의 조화 속에서 이루어진다. 러시아 혁명이 있기 전 러시아 제국이 쇠퇴하는 혼란기에 창의성이 융성하게 일어났다. 톨스토이, 도스토예프스키 같은 러시아의 위대한 작가들뿐만 아니라 예술과 과학에서도 러시아가 선도였다. 하지만 이러한 창의성을 효과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질서가 부재하였기 때문에 경제 성장에 실패하였다.

성공적인 사회를 위해서는 혼돈과 질서, 두 개의 대립되는 힘 사이의 역동적 긴장감을 창출하고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법칙8> 기초 연구에 대한 사회적 투자가 전제되어야 한다. 지식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연구나 기술에 필요한 투자를 기꺼이 할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리고 R&D 기술이 성과를 거두려면 새로 개발된 기술을 경제 속으로 깊이 뿌리내리는 데 필요한 활동이 뒤따라야 한다. 이러한 사회적 투자는 일출효과(spillover effects)를 통해 높은 민간 수익을 파생시키는 역할을 한다. 사회는 24%의 민간 수익률이 아니라 66%의 사회 수익률을 만들 수 있다.

<법칙9> 자본주의는, 명확하고 행사하기 쉬운 소유권의 개념을 필요로 한다.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대기업은 지식 이외에 가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소유하고 있지 않다. 지적 재산을 보호하고 그 영역을 확장하기 위한 싸움이 오늘날의 경제 게임이다. 만약 마이크로 전자공학이라든가 생물공학, 디자인 제품, 전자 통신 같은 산업의 지적 재산권이 쉽게 복사될 수 있다면, 그 소유자는 부를 얻거나 종업원은 높은 임금을 받을 수 없게 될 것이다.

<법칙10> 부의 피라미드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기능 획득의 체계가 변해야 한다. 모든 연령층의 기능 획득과 더불어 교육이 실현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필요한 기능은 빠르게 이동하는 신기술의 전개에 좌우되므로 기능의 다수는 직장 내 훈련에 의해 창출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제 한 회사에서 평생 동안 일하는 개인은 없다. 회사 역시 평생 동안 같은 고용인을 쓰지 않는다. 문제는 일자리가 아니라 활용가치가 있는 기능을 전제로 한 경력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법칙11>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설비 투자가 필수적이다. 지식이 유용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도구가 개재되어야 한다. 도구가 없으면 거의 모든 기능이 수용될 수 없다. 자본주의 하에서는 도구를 소유한 사람들이 의사결정자가 되며, 시장의 부는 도구의 소유권과 도구에서 나오는 산출로 구성된다. 도구 건설은 미래에 대한 관심도에 좌우된다. 개인과 조직은 현재의 소비에 쓸 수도 있었을 재원과 시간의 일부를 사용하여(예컨대 현재의 만족을 연기하는 것, 저축 등) 도구를 만듦으로써(투자), 더 많은 것을 미래에 생산할 수 있다. 새로운 도구를 이용하여 최근의 지식을 차용하고 기능을 확장하고 자연자원의 이용도를 높임으로써 궁극적으로 더 많은 부를 창출할 수 있는 것이다.

<법칙12> 경제 개발과 환경 보호를 통해 부를 증가시켜 왔다. 둘 다 인간 삶의 수준을 더 높이는 데 즉 더 나은 인간의 환경에 이바지한다. 우리는 환경 문제를 해결하면서 동시에 자원을 보다 효과적으로 부의 창조에 이용하는 방법을 배워 왔다. 사용량을 줄이고 경제적으로 구할 수 있는 공급 물량을 늘리는 인공 기술 덕분에 자연자원이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인간은 신물질과 새로운 생물체를 창조할 수 있는 능력까지 소유하게 된 것이다.

<법칙13> 운은 부자가 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이다. 재능과 추진력, 인내만으로는 부자가 될 수 없다. 빌 게이츠가 미국 가구의 하위 40%에 해당되는 정도의 재산을 가지고 있다하더라도, 그가 그들의 재능을 하나로 모은 만큼의 재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고 빌 게이츠를 그저 운이 좋은 사람으로만 평가할 수는 없다. 적시에 꼭 필요한 장소에 있었고, 행운을 이용할 재능 역시 갖추고 있었다.

3. 에필로그

이 책은 사실 '부'에 대해서보다는 '(진보의 개념에서) 발전'에 대한 체계적인 방법론을 제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저자는 분명 '부'에 대해 매우 긍정적인 신념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이면에는 개인, 기업, 국가의 '발전' 전략을 논리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특히 발전에 있어 지식, 기능과 같은 새로운 패러다임이 그 핵심이 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부라는 것은 상대적인 개념임에 비해 발전은 절대적이다. 즉, 부자는 가난한 사람들의 존재에 의해 만들어지지만, 발전은 부자이건 가난한 사람이건 누릴 수 있는 즐거움이다. 상대적인 부에 대한 미련은 하루 속히 버리는 것이 현명하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발전이 갖는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발전의 방향을 올바르게 잡아가는 것이다.

(고연정 : ejko@hri.co.kr ☎ 724-4091)